

# 장흥군 '사람 중심 미래의학' 통합의학박람회

### 18~22일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 '100세 시대, 통합의학' 주제 110개 기관 참여해 진료체험 제공... 체험프로그램·전시관 규모 확대

'2024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오는 18일부터 22일 까지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린다.

110개 기관이 참여해 진료 체험과 건강강좌 등 다채로운 의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사람 중심의 통합·미래 의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지는 올해 박람회는 '100세 시대, 통합의학!'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통합의학을 통해 건강한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통합의학을 대표하는 장흥의 상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박람회의 목표다.

올해 박람회에는 전국 대학과 병원, 의료산업 업체, 보건소 등 110개 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진과

전문가가 참가해 통합의학적 진료체험을 제공한다.

18일 오후 2시 통합의학박람회 주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통합의학의 과거와 미래를 설명한 주제영상과 통합과 상상 세레모니, 축하공연으로 진행된다.

축하공연에는 박지현, 현숙, 강민, 손태진, 황민호 등 유명 가수들이 나서 세대공감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박람회에는 대구 전인병원, 충주 위담통합병원 등 통합의학전문 의료기관 유치에 집중하고 체험부스를 늘렸다.

아외 약초 족욕장, 키즈체험, 맨발지압존, 어싱길 등 통합의학적 체험프로그램은 확대하고 전시

관 규모도 기존보다 확장했다.

지난해 개선점으로 지적됐던 냉방시설, 교통안전, 행사장 그늘막 등의 시설도 대폭 보강했다.

전시관은 주제관, 통합의학관, 보안대체의학관, 건강증진관, 건강영양관, 힐링테라피·의료산업관으로 구성됐다.

주제관에서는 통합의학의 발자취를 한눈에 알 수 있는 히스토리 공간을 운영하고 명사 초청 건강강좌가 개최된다.

통합의학컨벤션센터 인향관에서 진행되는 건강강좌는 홍성우 비노의학과 전문의, 김은정 맨발학교 사무총장, 양재진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강사로 나선다.

주제관과 연결된 의료기기체험관에서는 체형분석, 스트레스 및 혈관건강측정, 재활운동비, 어르신 돌봄로봇 등 최신 의료기기를 체험할 수 있다.

통합의학관은 양방·한방 내과, 만성질환, 통합암 치료 상담, 노인 인지검사, 구강케어 등 다양한

의료 체험 마련됐다.

보안대체의학관에서는 흉체 검진, 근육신경조절술, 카이로프랙틱, 경락마사지 등 관람객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보안대체의학 체험이 진행된다.

힐링테라피관에서는 생약초 뷰티테라피, 탈모 예방 두피 관리, 근골격계 질환 완화 등의 서비스와 의료산업 품목들을 시연해보고 구매해 볼 수 있다.

장흥통합의료병원에서는 약초치료, 뜸치료, 가상현실영상, 음악치료 등의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통합의학의 단순히 질병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하는 미래 의학이다"며 "통합의학박람회의 건강한 체험을 통해 아름다운 추억, 건강한 내일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부장 kykim@

## 장성군, 자활복지개발원과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협약

장성군이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관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발표심사를 거쳐 전국에서 3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는데 장성군이 포함됐다.

군은 지원금 10억원과 군 예산 5억원 포함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장성지역자활센터를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 장소는 현 장성을 가장복지화한 건물로,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입주하게 된다.

지역자활센터가 읍시가지에 들어서면 자활 참여 주민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자활센터와 사업장을 통합 운영하게 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자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 화순군 벼 경영안정대책비 25일까지 읍면 방문 신청

화순군이 2024년에 신규로 벼 경작을 시작한 농업인 및 벼 경영체 등록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신청을 25일까지 읍면에서 방문·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 발생 등으로 어려운 벼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은 해당연도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한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실제 벼 재배가 확인된 필지에 지급되는 소득보전 직불금이다.

농가별로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이 원칙이고 2024년 벼 재배 대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 및 벼 재배 면적 감축 협약 가입 농지는 예외적으로 지원하지만 공무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자, 0.1ha(300평) 미만 벼 재배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전남 일괄 모집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신청접수 및 지급 기간을 통일했으며 신청·접수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24년에 신규로 벼를 재배하거나 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들은 반드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올해 지급대상자로 선정된다.

향후 신청접수 및 지급 요건 검증 등 거쳐 연말에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최홍남 화순군 농업정책과장은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 발생 등으로 어려운 벼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각 읍면과 협업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우평마을 어른들이 으뜸마을 시책사업으로 진행된 초상화 캐리커처 그리기를 하고 있다.

## 함평 우평마을 공동체 힘으로 소멸 위기 대응

###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 협력·화합 마을 활로 모색

함평군 읍마다 우평마을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마을에 3년간 매년 500만원을 지원해 주민 화합과 공동체 정신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전남도 시책사업이다.

읍마다 우평마을은 현재 거주 인구 28명으로 마을 소멸의 경계에 서 있지만, 남아 있는 주민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꾸꾸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우평마을은 함평군의 상징인 내비, 국화, 한우 등의 벽화를 그려 마을 분위기를 개선했고, 올해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였

던 냇은 우물을 복원해 주민 쉼터로 탈바꿈시키며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데 이바지했다.

최근에는 마을 교육 공동체와 협력해 어른들의 초상화 캐리커처를 그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어른들의 삶을 기록하고 추억을 공유하며 고향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금옥 우평마을 이장은 "마을 어른들과 함께 즐겁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 미관이 개선되면서 귀농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며 "마을 주민들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을 통해 협력과 화합을 기반으로 마을 존립을 위한 활로 모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주민들이 직접 주도하고 참여하는 이번 으뜸마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더불어 잘사는 일등 함평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강진군이 최근 실시한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 모의매입 장면.

## 강진군, 공공비축미 플랫폼 모의매입 완료

### 시스템 시험 운영 개선사항 도출 블록체인 기술 투명·효율성 높여

강진군이 지난 7일 강진농협 농산물 공동선별장에서 진행한 모의 공공비축미 매입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의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며 플랫폼의 홍보와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자리였다.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은 강진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블록체인 집중확산 사업에 선정돼 ICT 전문기업 다운플레이스와 함께 개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라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 강진군 농정팀, 읍면 산업팀, 농업 관계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강진 사무소, 블록체인 누리단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실제 매입 현장을 그대로 재현한 테스트를 통해 플랫폼을 체험하고 제

안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블록체인 누리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국민 참여단으로, 실제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체험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며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았다.

이번 모의매입을 통해 실시간 매입 정보 제공 및 전자 서명, 전자 매입증명서 기능을 포함한 플랫폼의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을 점검했다. 참가자들은 플랫폼을 직접 체험하며 제안된 개선사항을 논의했고, 이러한 의견들은 11월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공공비축미 매입에 반영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모의매입을 계기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공공비축미 매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농업 행정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농업 행정에서 더 나은 혁신을 이루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 보험료 상승의 주범

# 보험금 갇아먹는

# 기생충이

#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자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